고교학점제 바로 알기

【문 1】
학생이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하는 선택형 교육과정은 고교학점제의 전면 시행으로 2025년부터 시작되었다?

○ 사실이 아닙니다.

○ 1997년 12월 발표(고시)되어, 2002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된 **제7차 교육과정**부터 학생의 희망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수강하는 **선택 중심 교육과정**을 **운영**해 왔으며, 선택 중심 교육과정(선택과목)은 국가차원의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마다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.

○ 특히 2018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된 **2015 개정 교육과정은 현재 고등학교 1학년과 유사한 선택형 교육과정으로** 운영되어 왔습니다.

※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현행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같이 공통과목과 일반선택, 진로선택 과목으로 구성되었음

○ 다만,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이전 교육과정보다 **선택 과목의 수가 증가**하였고(97개→137개), **융합 선택 과목**이 **추가**되는 등 **선택의 범위가 확대**되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만,

- 이는 학생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, 진로에 따라 수강하는 과목을 **직접 설계(과목 선택)**토록 함으로써 자신의 진로와 삶을 개척하는 **자기주도적인 사람**으로 성장토록 하기 위한 교육과정 개정 취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.

【문 2】
과목 선택과 관련하여 상담을 받으려면 사교육을 이용해야 한다?

○ 사실이 아닙니다.

○ 과목 선택과 관련하여 우선 진로 전담 선생님, 담임선생님, 교육과정 담당선생님 등 **학교 내**에서 **상담**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○ 학교 외에 **추가적인 상담**이 **필요**하다면 **시도교육청**에서 운영하는 **진로·진학지원센터**(시도별 명칭은 상이할 수 있음)에서 **상담**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○ 또한 '**함께학교**'(www.togetherschool.go.kr) - **[스터디카페] - [진로·학업 설계] - [컨설팅]**에서도 전국 모든 중학교 3학년, 고등학교 학생이 과목 선택, 진학 정보, 학습 방법 등에 대해 교육부 중앙지원단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※ "고교학점제 사교육에…교육부, 43만 고1 학생에 무료 컨설팅"(서울경제, '25.3.21.)

진로학업 설계

【문 3】

진로 변경으로 선택과목을 바꾸게 되면 대입에서 불이익을 받기에, 고교학점제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조기에 진로를 확정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중시킨다?

○ 사실이 아닙니다.

○ 2025년 전국입학사정관 협의회 최○○ 회장에 따르면, 각 대학은 대입전형 과정에서 **과목을 변경한 사실만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.**

○ 또한, 前전국진학지도협의회 이○하 수석대표(現 대전 중○고등학교 교장)에 따르면 많은 대학교가 점차 전공적합성*보다 **계열적합성****에 방점을 둔 **평가 방식으로 전환**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

*(**전공적합성**) 지원하는 특정 학과(전공)에 얼마나 많은 관심과 역량을 보였는가를 평가 (특정 학과에 대한 깊고 일관된 관심과 역량에 초점)

(계열적합성**) 특정 학과(전공)보다는 더 넓은 학문 분야(계열-공학 계열, 사회과학 계열, 자연과학 계열 등)에 대한 관심과 역량 및 기초 소양을 평가(학과가 아닌 학문 계열에 초점)

"입학사정 과정에서 전공적합도를 평가할 때 학생이 수강한 과목만 가지고 평가하지는 않아요. 더욱이 입학사정관들은 학생의 진로 희망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**학생의 진로 희망 변화로 학년별 선택 과목 분야가 바뀌었다고** 해서 **대입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**."

- 입학사정관협의회장 -

" 고등학교 과정은 고등교육(대학교육)을 받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함. 따라서 전공 적합성을 너무 미시적인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거시적인 관점을 갖는 것이 중요함"

-대입정보포털 대학별입시정보-학생부 종합전형 안내-○○대학교-

【문 4】

고교학점제 도입으로 대도시 소재 대규모 학교에 비해 농산어촌에 소재한 소규모 학교가 개설 과목이 적어 과목 선택과 대입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?

○ 일부만 사실입니다.

○ 선택과목의 **개설 수**는 학교의 **재학생 수와 그에 따른 배치 교사 수에 영향**을 받게 되므로, **학교 간 차이가 발생합니다.**

- 다만, 공통과목과 수능 과목은 전국 대다수 학교에서 개설되며, 일부 **선택과목에 한정하여** 학교별로 개설 여부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.

○ 교육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학생이 희망하는 과목이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을 경우, **공동교육과정, 온라인학교 등을 통해 이수**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.

- 또한, **'26년 교원 정원을 추가 확보**하고, **농산어촌 소규모학교에 과목 개설을 위한 강사 채용 예산도 집중 우선 지원하고** 있습니다.

○ 모든 학생은 고교 졸업을 위해 **192학점 이상 이수**하고, 대입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**필요한 과목을 수강**할 수 있으므로, **대입에 불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.**

【문 5】

내신 9등급제가 5등급제로 변경되면서 동일 등급을 받는 학생이 많아지게 됨에 따라 대입 변별력이 약화되었다?

○ 사실이 아닙니다.

○ **상대평가** 적용 **과목 수**가 **증가***하였으므로, **모든 과목**에서 **높은 등급**을 받기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.

* (고교학점제 이전) 진로선택과목 전체 3단계 절대평가
→ (고교학점제 이후) 융합선택과목 중 사회·과학 9개 과목만 5단계 절대평가

- 올해 신입생부터 석차등급 산출 과목도 성취도를 함께 제공하는 등 **대학**에 **제공**되는 **정보**가 **확대**되므로, **대학**은 **석차등급 외**에도 **다양한 평가 결과**를 두루 **고려**하여 변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○ **'25학년도 고1 1학기 '전 과목 1등급 비율'**이 우려와 달리 **매우 적게** 나타났으며, **학기**가 계속 **누적**된다면 **충분한 대입 변별력**을 **확보**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

【문 6】

고교학점제에 따른 이수/미이수제 운영으로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은 낙제가 불가피하기에 학점제는 결국 학생들을 학교 밖으로 내몰고 있다?

○ 사실이 아닙니다.

○ **기초학력**이 **부족**한 **학생**도 **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**를 통해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**지원**하고 있습니다.

- 실제로 '25년 1학기 운영 결과 **학업성취율 미도달 학생 비율**은 **6.6%**였으나, **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**를 거쳐 **0.3%**로 **대폭 감소**합니다.

○ 아울러, 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**'미이수 학생 추가 학점 이수 지원방안***'을 마련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.

* 추가 학점 취득 관련 세부 절차, 졸업 사정 등 세부 내용 '26년 1월 안내 예정

【문 7】

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대입에 불리해진다?

○ 사실이 아닙니다.

○ **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수강 사실**은 **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.**

- **학업성취율** 40%에 **미도달**한 **학생**이 보충지도를 이수한 경우, **성취도**를 **'E'**로 **부여**하고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를 받은 사실(**보충지도 이수 사실**)은 **기재하지 않습니다.**
- 아울러, **출석률 미도달 학생**이 추가학습을 이수한 경우, **성취도**를 **기재**하고 **추가학습 이수 사실**은 **기재하지 않습니다.**